

A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wearing a white lab coat over a blue and white striped shirt, is playing a gold saxophone. He is looking down at the instrument.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small painting of a landscape with houses and trees on a wall.

'열정'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색소폰 연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배영재 서울강남테크필피부과 원장

열정을 가진 이의 인생은 풍요롭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최신 의료 정보를 접해야 하는 의사들의 삶은 사실 초를 다뤄야 함에 다른 아니다. 그러나 그 초싸움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만의 특기를 살려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는 이들이 있다. 숨 가쁜 진료현실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는 의사들을 만나 그들만이 가진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문윤희 기자> jazz@pharmstoday.com

열정은 사람이 꾸는 꿈을 풍요롭게 만들고 답답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소화하기 위해 땀뿡기를 반복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이들은 보람찬 오늘을 마감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를 만든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는 이처럼 천지간의 결과를 만든다.

악기 다루기를 사랑하고 그림을 취미로 삼고, 사진을 소일거리로 여기는 의사, 배영재 서울 강남 테크윙피부와 원장은 연간 40여회의 연주회에 참석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다른 이들의 귀에 만족감 있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색소폰 연주가다. 각기 다른 방면에서의 취미활동을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다. 다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처럼 그는 의료계에서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인사가 됐다. 유명세처럼 그는 강남 양재천에서 울려 퍼지는 연주회에서, 젤로 소원드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어렵지 않게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독주 무대를 서는 양재천 공연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그에게 '단독 공연'의 무게감을 선사한다. 그는 이 공연을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대 레퍼토리를 짜는데 할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관객에게 전달

할까를 고심한다. 양재천 공연에 함께 참여하는 '양재뮤즈클럽'의 일원이 된지는 5년이 됐다. 그 클럽에 들어가 공연을 함께하는 5년 동안 그들의 공연을 즐기던 시민들은 1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났다. 연주회가 정기화되면서 흩먼지 날리던 바위 의자가 어엿한 계단식 관객석으로 탈바꿈됐고 산책로 시멘트 바닥이었던 공연자의 자리도 무대로 바뀌었다. '뭐든 하려거든 열심히 하고, 나도 타인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그의 생각이 소수의 아마추어 공연을 양재천 문화트렌드로 창출해 냈다. 그는 "처음 공연에 참여할 때는 강변 둔치에 시민들이 앉아 음악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엿한 공연장이 들어서고 공연자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생겼다"면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다"고 말했다.

독주와 합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양재천에서의 공연은 여러 공연자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독주 무대'라면 '젤로소원드오케스트라'는 단원들과의 호흡을 같이하는 '화합'이라는 의미를 그에게 경험하게 한다.

배영재 원장은 "각각의 무대가 매력이 있다. 독주

양재천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



는 내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 합주는 단원들과의 호흡과 에너지를 나누는 공감의 장"이라며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들에게 음악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고 했다.

지난 1995년부터 오케스트라 단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각 지방의 교도소와 실버타운, 정기 공연, 합동 공연 등 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해 음악이 삶에 주는 영향을 직접 깨닫고 있다고 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데 음악만 한 건 없어요. 일전에 교도소 공연을 갔었는데 거기서 쇼생크탈출에서 나올 법한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재소자들이 관현악 공연을 접하면 얼마나 접했겠어요. 합주를 통해 음의 영역이 선사하는 신기한 체험을 한 그들의 얼굴이란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할 감동이었죠. 제가 그들에게 음악으로 큰 삶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연을 안 할 수 없겠죠.

"환자나 다른 의사동료에게도 악기를 다뤄보라고 권하는 그도 사실 친구 부인의 권유로 색소폰을 접하게 됐다. 처음 접한 악기는 클라리넷이었지만 지도 선생님의 유학으로 남자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고심한 끝에 색소폰을 선택했다.

그의 인생의 낙이 된 색소폰을 소개한 친구의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 그는 의외의 답변에 놀랐다고 한다. 부인이 차분히 "만족하시면 된 거죠"라고 응답했기 때문. 음악으로 기쁨을 맛본 이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감'이 형성됐던 것이다. 음악을 즐길 줄 아는 프로의 참모습이라 할 만하다.

'즐기는 음악'에서 즐기는 삶으로

그가 색소폰을 잡은 지는 열추 20년이 흘렀다. 처음엔 지인의 소개로 접한 악기가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됐다. 나중의 일이지만 그는 음악하는 기쁨을 삶에 녹여내려 한다. 후에 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작은 음악회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여유롭게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는 바이올린을



시작해 관현악을 뛰어넘는 진정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음악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이런 나의 경험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 작은 음악회도 열고 소모임도 만들고 해서 보람찬 생활을 하고 싶어요."

최근 유행하는 '재능 기부'의 참 실천가라 할 만한 배영재 원장은 마지막 꿈은 뭘까?

그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픈 게 꿈이라고 했다. 지금이 늦었다고 안하는 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려 한단다. 실버타운에 위문 공연을 가면 듣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저 나이 때라도 음악을 할 켄'이라는 푸념이란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의 삶의 살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작가의 삶의 일부분을 맛본다. 음악을 하면서 음악가의 기쁨을 느끼고, 그 재미를 알면서 연애하는 맛을 느낀다"며 다방면에 열정을 가진 이유를 설명했다.

배영재 원장을 보면 '도전하는 인생이 멋지다'라는 광고 문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을 실천으로, 일상을 열정적'으로 사는 그의 삶에 어떤 내일이 다가올지를 기대해 본다.